

병원에 가면 김밥을 먹는다



오늘 소풍을 간다. 그렇게 중얼거린다. 새벽 다섯 시부터 부신하게 움직인다. 어젯밤에 머리 이불 속에 넣어둔 속옷으로 갈아입는다. 목욕을 하고 머리 책상 위에 챙겨놓은 니머지 옷들을 입는다. 나를 꼭두새벽에 삼 깨운 휴대전화를 호주머니에 넣어놓는다. 바깥바람은 아직 차지만 조금씩 따뜻해진다. 차가운 손가락을 문지르며 몸을 녹인다. 손가락이 조금씩 온고양이처럼 멀리 달아난다. 잠시 뒤돌아보면 창문을 열고 가슴이 손을 흔든다. 한 달에 한번 다녀서 온갖 병원으로 전락하는 거지. 나는 말한다. **김밥**

그러니까 6년 전인가? 그때, 나는 걷지도 못하였다. 목발을 짚은 것도 아닌데 계단을 오르지도 못하고 숨을 헐떡 거렸다. 결국 보건소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슬피할 겨를도 없이 며칠 후 구급차를 타고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온몸에 붉은 점들이 미명소리처럼 찍혀있었다. 그러나 보름 정도의 중환자실 생활과 한달여 일반병실 생활로 급속도로 내 건강이 회복되었다.

내게 희망은 그렇게 아침 해처럼 든든하게 떠오르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었다. 이삼 년 정도는 현대의학에 감탄도 하고 인터넷 감염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외로움도 없애보았다. 그러나 나는 처군이 남은 솔로였고, 직업이 없었고,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사폐아: 아니었지만 사실상 사폐아였다.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외톨이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외톨이었다. 창 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잠을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손은 내밀면 언제나 불투명한 유리가 날 가로막고 있었다. 입으로는 희망이라고 노래하고 있었지만 발은 절망하고 있었다. 몇 번 사회로의 진출을 꾀하기는 했지만 결국 나는 집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에이즈……라는 글자가 등에 업혀있는 귀신처럼 날 괴롭혔다.

인터넷 감염인 사이트에 힘내세요, 직업을 가지세요, 파이팅! 그런 댓글을 던던 나는 어느 순간 자멸하고 말았다. 편지 한 통 남겨놓은 무단가축! 내 등에 업힌 귀신은 날 이곳 저곳 구경시켜주었다. 그러나 돈은 금방 바닥났고



오간 데 없는 나의 종착역은 피씨방이었다. 유서를 써야 하나? 유서를 쓰면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하나? 이메일을 보내면 그 사람이 이 글을 언제 읽어볼까? 생각을 하면서 죽을 궁리만 했다. 하지만 운명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저 배가 고파서 피씨방을 나왔다. 돈이 많지 않았기에 짠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시켜먹은 것이 김밥 한 줄이었다. 배가 고파도 김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복구명으로 넘어가는 건, 뜻밖에 '살아보자' 다짐이었다. 이유는 없었다. 놀라운 변화를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야 할지,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 약한 의지력이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분식집 밖으로 나오니 김밥만한 실용이 가로등마다 불 하나씩 매달고 있었다.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들은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나에게 말했다.

내가 탄 버스가 벌써 목적지에 도착했다.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난 탓에 잠시 미스 창에 몸을 기대고 잠들었으나 보다. 감염내과 진료를 마시면 나는 김밥을 사 먹을 것이다. 병원을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을 잊어버릴 것이다. 바치소풍 온 것처럼 즐겁게 걸어갈 것이다. 김밥 한 개씩 씹어먹으면서 생각할 것이다. 죽기 싫어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기 전에 병원을 잠깐 들르는 것이라고. 휴대전화가 울린다. 보건소 담당사 분이 병원에서 만나자고 한다. 오늘 소풍 참가인원은 두 명인 셈이다. 아침 해가 이마를 어루만진다. 햇살이 앞새처럼 싱싱하다.